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룬 옥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와
아르노 가이거의 『유배 중인 나의
왕』에 나타나는 자전소설의 기능과
의미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임 경 은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와
아르노 가이거의 『유배 중인 나의
왕』에 나타나는 자전소설의 기능과
의미

김 룬 옥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임 경 은

인 준 서

임경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5월

심사위원장 정 이 화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신 혜 양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김 룬 옥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활동 시기가 서로 다른 두 독일어권 작가의 전기소설, 즉 토마스 만 Thomas Mann의 『파우스트 박사 Doktor Faustus』(1947), 그리고 아르노 가이거 Arno Geiger의 『유배 중인 나의 왕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2011)에서 드러나는 독일 정신과 함께, 각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내용적 및 형식적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자전소설의 기능과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으로 독일적인 정신은 특유의 관념론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범세계 시민주의적인 속성을 띠게 되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된 독일어권 민족의식은 민중을 위한 루터의 신앙론과 근대의 인문주의에서 유래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적인 정신은 범시민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세계시민주의가 근·현대적 예술 분야에서는 특히 바그너, 니체, 토마스 만 등으로 이어진다. 한편, 아르노 가이거는 작품 속 이전 세대 독일 작가들의 여러 문구들도 자신의 작품에서 인용할 만큼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법하며, 21세기에 광범위하게 두드러지는 치매담론을 통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런 배경에서 예의 두 전기소설의 작가는 자신의 개인사를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그려낸다.

20세기 독일 현대문학을 대변하는 작가로 평가받는 토마스 만은 주인공 아드리안 레버쿰과 그의 전기를 기록하는 1인칭 서술자 제레누스 차이트블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온 정신사적인 과정을 그려내고, 동시에 그런 정신사가 시대적·정치적 여건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분석하며 다층적으로 풀어낸다. 한편, 아르노 가이거는 알

츠하이머를 겪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를 돌보는 1인칭 서술자인 아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서술한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가 겪는 질병을 통해 아버지와 그의 삶을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도 재발견한다. 여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심경변화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심경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작가 아르노 가이거의 감정들을 대변하며, 아들의 이야기를 형성해가는 주축이 된다.

토마스 만이 『파우스트 박사』를 집필하게 된 배경이 나치즘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는 사실은 작품의 형식적인 면에서 독특한 서술기법을 구성한다. 당시에 미국에 망명 중이던 토마스 만은 파우스트 소재를 패러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 자신의 문학적인 자아를 주인공 파우스트-레버퀸과 그의 친구로서 전기 기록자인 차이트블롬으로 양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가까우면서도 먼 독특한 친구 관계에서 서술되는 영욕의 천재적 삶을 통해 작가는 천재-레버퀸 및 평범한 시민 차이트블롬과 자기 동일화를 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토마스 만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전략은 독일 정신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전쟁 속에서 자신의 정신세계와 독일적인 본질을 반추하고 또한 해명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아르노 가이거의 『유배 중인 나의 왕』에서 치매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곁을 지키는 아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인 서사가 부자 관계로 설정된 두 핵심 인물에 의해 진행되거니와, 아들의 이야기도 아버지와의 관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아들이 얻게 되는 깨달음이 각각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결국 이 두 이야기는 부자간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즉 가족적인 연대감의 회복과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드러난다. 이때 1인칭 서술자의 깨달음은 매우 자주 여러 작가들의 인용과 격언, 또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 대화

장면을 통해 뒷받침되곤 한다.

결론적으로, 각기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두 작가의 자전소설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자아성찰과 성숙,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인 인간성 회복을 통해 자전소설의 기능과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자전소설의 개념과 주요 관점	1
II. 자전소설의 내용적 및 형식적 주요 특징	5
1. 독일적인 속성	5
2.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6
2.1. 내용적 요소	6
2.1.1. 독일 정신의 회복 시도	6
2.1.2. 독일적인 천재 아드리안 레버퀸	8
2.2. 형식적 요소	13
2.2.1.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설정: 친구 관계	13
2.2.2. 이중적인 서술시점	16
2.2.3. 토마스 만적인 패러디	18
3. 아르노 가이거의 『유배 중인 나의 왕』	20
3.1. 내용적 요소	20
3.1.1. 독일적인 의식	20
3.1.2. 아버지 혹은 아들의 이야기	21
3.2. 형식적 요소	28
3.2.1.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설정: 부자관계	28
3.2.2. 서술시점	31

3.2.3. 타 작가의 재소환.....	34
Ⅲ. 결론	35
참고문헌	38
ABSTRACT	41

I. 서론: 자전소설의 개념과 주요 관점

어떤 소설이라도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성되기는 어려우며, 창작은 여러 의미의 ‘모방’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현대 소설에서는 자전적인 현실 체험의 도입이 개별 작가나 작품을 넘어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인문주의와 함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주체로 부상한 개별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문학에서도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작가가 자신과 스스로의 경험을 서사적 세계의 중심에 세우는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소설의 자전적인 내용이 물론 자서전¹⁾의 내용과 동일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가들은 주로 ‘허구와 실제’ 사이의 경계 짓기를 통해 자서전과 자전소설에 대한 논의를 펼쳐왔다²⁾. 자서전을 규정하는 형식상의 원칙이 “본명을 사용한다는 것과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야 한다”³⁾ 라는 점이라면, 이때 작가, 서술자, 주인공의 일치 여부가 자서전을 전기나 자전소설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전소설은 작가가 “자기의 생애나 그 일부를 소재로 쓴 소설로 [...] 소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대로 꾸며서 기술하며, 3인칭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전기’나 ‘자서전’과는 다르다.”⁴⁾ 라고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자서전이 (사실 혹은 진실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체성’을 추구한다면, 자전소설은 원칙적으로 ‘허구성’이 가미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에서 1인칭 서

1) 자서전의 정의는, “자기의 생애에 관한 즐거리를 가진 자기 진술 형식의 기록물을 일컫는 용어이다. 자전(自傳)이라고도 한다. [...] 그러나 소설이 아니다.”를 참고.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경기: 국학자료원, 714.

2) 이 주제에 대한 연구서로는, Michaela Holdenried(2000): Autobiographie. Stuttgart; 최근의 국내 연구로는 제여매(2014): 자서전의 이론과 변천 - 자서전에서 ‘자전적 소설’로, in: 독어교육, 제67집, 203-225.

3) 서유정(2011): 한·독 여성문학의 ‘자전적 글쓰기’ 비교연구 - 헬가 노박과 오정희의 성장소설, in: 세계문학연구비교, 제35집, 137-159, 여기서는 140.

4)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a.a.O., 735.

술자가 작가로 이해되는 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는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가와 구별된다. 이로써 자전소설에서 작가는 자전적인 요소를 드러내면서도 서술자와의 거리 취하기를 동시에 시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전소설과 자서전은 심층심리적 경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층에 생존과 죽음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있다면, 이를 통제하려는 방어기제가 흔히 자서전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성중심주의적인 역사는 자서전 역시 ‘남성의 영역’으로 굳혀왔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남성은 흔히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하려는 욕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드러나는 ‘고백적인’ 경향은 서구의 자서전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자서전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Confessiones』(397-400), 그리고 루소의 『고백록 Confessions』(1769)과 괴테의 『시와 진실 Dichtung und Wahrheit』(1808-1831), 톨스토이의 『고백록 A Confession』(1879-1882) 등은 모두 그러한 경향을 잘 말해준다. 세상을 향한 이와 같은 ‘공개적인 고백’은 ‘진실성’을 내세우며 사실상 ‘자기주장’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자전소설에서 (남성)작가는 일단 여러 미학적인 장치를 통해 ‘허구성’을 내세우며 ‘자기은폐’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은폐된 가면 뒤에서 더욱 자유롭게 ‘자기고백’ 내지 ‘자기주장’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개적인 고백’이든 ‘은폐된 고백’이든 자서전과 자전소설은 18세기 이후 문학의 ‘공적인 기능’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⁵⁾ 다시 말해, 자전소설이 함축하고 있는 주제 의식의 파급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자전적 글쓰기’가 처음에는 주로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보였지만”⁶⁾ 오늘날 세대, 성, 사회적 역할 등의 구별 없이 관심을 끈다는 점에

5) 제여매(2014): a.a.O., 218 참조.

6) 같은 곳.

서 그런 ‘공적인 기능’ 내지 파급력이 확인된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자전적 글쓰기’가 논해지는 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모더니즘 시대에서야말로 “주관성과 개인주의를 중시”⁷⁾하면서 현대 주체의 내적 경험, 개인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작가들은 “가치와 진리가 ‘나’로부터 나온다고 굳게 믿었”⁸⁾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 보다 몰두하여 이를 작품 속에 풀어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허구와 실제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⁹⁾, 그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 역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자서전과 자전적 글쓰기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각종의 자전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보다, 그런 요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소설에 가미되었는지를 고찰하면서 자전소설의 기능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다. 그가 ‘어떤’ 사건을 자전소설에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등장시키는지, 그런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서술되는지, 그리고 이때 자전적인 ‘나’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등은 결코 우연히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작품의 주제 의식과 긴밀히 연결되며, 작가에 따라 독특한 미학적 형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독일어권 자전소설로서 토마스 만 Thomas Mann(1875-1955)의 ‘망명소설 Exilliteratur’ 『파우스트 박사 - 한 친구가 전하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쿰의 삶 Doktor Faustus. Das Leben des deutschen Tonsetzers Adrian Leverkühn, erzählt von einem Freunde』 (1947)¹⁰⁾과 최근 독일어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아르노 가이거

7) 김옥동(2004):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72.

8) 같은 곳, 73.

9) 영국의 문학 이론가 테리 이글턴도 자서전과 자전소설의 비교에서도 “‘사실’과 ‘허구’의 구분은 논의 전개에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특히 이 구분 자체가 종종 모호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바 있다: 테리 이글턴(2001), 문학이론입문, 김현수 옮김. 인간사랑, 16.

10) 이하 본문에서는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의 부제를 생략함.

Arno Geiger(1968년 생)의 자전소설 『유배 중인 나의 왕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2011)을 비교하며 분석하여 (어쩌면 ‘독일적인’) 자전소설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이 두 작가의 작품은 자전소설로서의 공통점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각기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 여기서 공통점은 이른바 ‘독일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정신은 개별적인 것으로써 보편적인 것을 대변한다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시점에서 드러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시대에 활동했던 두 작가의 자전소설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독일적인 자전소설의 면모를 말해주는지는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II. 자전소설의 내용적 및 형식적 주요 특징

1. 독일적인 속성

우선 독일어권에서 민족의식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 신성로마제국이라는 범유럽적이고 범민족적인 체제를 주도하며 ‘유럽인’으로서의 의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를 형성했던 영국 및 프랑스와 달리, 독일어권이 18세기에도 300여 개의 영토로 나뉘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오늘날의 ‘독일’이라는 단일 국가도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하며, 여기에는 당시 강력한 국가였던 오스트리아가 여전히 빠져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 정신 Deutscher Geist’에 대한 ‘독일인들’ 스스로의 논의는 오랫동안 ‘세계시민정신’으로 요약되곤 하였다¹¹⁾. 그것은 민중을 위한 루터의 신앙론과 근대의 인문주의에서 유래하며, 기본적으로 범시민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을 띤다. 괴테나 실러가 ‘세계시민정신’을 논할 때, 또는 베토벤이 전 세계를 향해 인류의 결속을 노래하는 ‘합창 교향곡’을 울려 퍼지게 했을 때, 이들은 모두 ‘인류 공통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후 나폴레옹의 독일어권 침입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인들의 민족의식은 프로이센이 구축한 독일제국에 이르러 더욱 커지게 된다. 다만, 가령 리하르트 바그너가 독일의 정신을 범인간적인 것과 동일시할 때, 범

11) 김률욱(2019a):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 예술의 허와 실 - 리하르트 바그너와 토마스 만을 예로, in: *독어독문학*, 제150집, 60권 2호 참조.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요컨대 괴테의 독일적인 ‘천재’의 속성이 어느덧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예술분야에서 바그너, 니체, 토마스 만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범세계시민주의는 독일의 전통적이고 관념론적인 사상에, 즉 정치적 성향의 부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비정치적인 의미의 범인간적이고 순수한 이상주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악용되면 파괴적인 지배욕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말해준 바 있다. 괴테와 실러의 순수이상주의적인 독일 정신이 20세기에 이르러 나치즘으로 변질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

2.1. 내용적 요소

2.1.1. 독일 정신의 회복 시도

토마스 만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은 그의 첫 장편소설이자 자전소설인 『부덴부르크 일가 Buddenbrooks』(1901)이다. 1929년에 그에게 노벨문학상도 안겨다 주었던 이 가족연대기는 26세의 젊은 작가가 자신의 가족사를 4대에 걸쳐 소설화하며 탄생했다. 그는 예의 작품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주목을 끌게 되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내지 “매우 독일적인 작품 ein sehr deutsches Buch”¹²⁾이 “유럽의 시민계급 그 자체 das europäische Bürgertum überhaupt”¹³⁾의 이야기로 읽히더라는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흔히

12) Thomas Mann(1974): Zu einem Kapitel aus ‘Buddenbrooks’, in: Ders., Gesammelte Werke in dreizehn Bänden, Bd. XI. Frankfurt a. M., 552-556, hier 554.

13) Ebd., 553.

‘가장 독일적인 작가’로 평가되는 토마스 만은 평생 누구보다 철저히 ‘나’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고, 또한 작품에 그려진 ‘나’의 모습을 실제로 구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¹⁴⁾. 그럼에도 그의 문학이 ‘세계문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작품을 채우고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문제들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정치성과 거리가 멀었다.

한편, “한 비정치적 인간’ 토마스 만의 정치적 개안은 1922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¹⁵⁾으며, 이때부터 그는 “점차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로 변신해 간다.”¹⁶⁾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전 세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가고 있을 때 자전소설 『파우스트 박사』를 집필하던 토마스 만은 독일적인 혹은 범세계시민적인 세계관에 잠재된 포괄적 지배력을 꿰뚫어 본 것으로 나타난다. 부제가 말해주듯 이 소설은 “음악가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일종의 ‘예술가소설’이다.”¹⁷⁾ 작품의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은 그의 “고유한 소설 형식인 ‘예술가소설’로 복귀한 데에 불과하다”¹⁸⁾고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도 괴테의 파우스트적인 천재성을 강압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왜곡하여 착복한 나치의 실상에 경악하던 토마스 만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파우스트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파우스트 박사』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로 전개되거나, 동시에 독일적인 인간관 내지 세계관의 동시대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특징적인 점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작가의 고뇌가 매우 복합적인 서사와 서술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누구보다 ‘독일적인 작가’였던 그가 나치즘에 빠진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 혹은 ‘자발적인

14) Dazu Rolf G. Renner(1985): Lebens-Werk. Zum inneren Zusammenhang der Texte von Thomas Mann. München.

15) 안삼환(2016): 새 독일문학사. 서울: 세창출판사, 550.

16) 같은 곳.

17) 같은 곳, 558.

18) 같은 곳.

유배' 길에 올라야 했고, 독일 정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파우스트 이야기를 미국 시민으로서 기술해야 하는 상황에서 겪는 매우 복잡한 심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고국의 패전을 기원하며 집필한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이 매우 '독일적임'을 고백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온 영욕의 과정을 독일 정신의 형성과 발전 및 몰락이라는 과정과 함께 그려내야 했던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토마스 만이 자전소설 『파우스트 박사』를 서술하는 전략은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음악에 천재성을 지닌 주인공 아드리안 레버퀸의 존재와 삶을 1인칭 서술자, 즉 그의 죽마고우 격인 제레누스 차이트블롬의 시각에서 다선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작품 주제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로써 작가 토마스 만은 자신의 자전적인 인물 레버퀸으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자전적인 서술자 차이트블롬으로부터 동시에 거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의 거리를 통해 토마스 만은 오랫동안 자기 정체성의 지표로 작용했던 독일적인 파우스트 이야기 내지 '천재' 사상이 정치적으로 왜곡된 시대적 위기 속에서 자기 극복과 함께 '원래' 독일 정신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1.2. 독일적인 천재 아드리안 레버퀸

괴테가 1775년에 초고로 작성한 파우스트 사본이 1871년에 발견되면서 파우스트 이야기가 처음으로 문학화된 날이 밝혀졌다. 괴테는 초고를 작성한 지 약 15년 뒤에 『단편 파우스트』(1790)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파우스트 제1부』(1808) 및 『파우스트 제2부』(1832)에 걸쳐 대작으로 완성된다. 괴테의 파우스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한 학자이지만, 결국 삶의 한계에 부딪혀 절망한다. 그

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계의 ‘본질’에 다다르기 위한 최종적인 시도를 꾀한다. 이를 위한 그의 묘책은 메피스토펠레스와 맺는 계약이다.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 파우스트는 평생 맛보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환락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죽어서 그의 영혼을 악마에게 내어주기로 한다. 여기서 괴테는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인간 존재의 비극으로 이해했음이 드러나고, 이 점에서 그는 동시대인들과 같은 의식을 나누고 있다. 물론 괴테의 파우스트가 ‘영원히 여성적인 것 Das Ewig-Weibliche’의 힘을 빌려 끝내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괴테의 남다른 ‘천재적인’ 인간관도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괴테-파우스트는 일반적인 모든 인간 존재를 초월하는 특별한 존재, 즉 ‘천재’로 구상되었음이 나타난다. 그는 ‘보통 인간’으로서 끔찍한 죄를 지었으나, 처절한 반성과 함께 만인을 위해 부단하게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추대된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괴테의 독일적인 변증법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서구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 즉 세상 내지 삶을 로고스와 에로스, 신과 인간, 하늘과 땅, 정신과 자연, 서양과 동양, 남성과 여성 등의 상호 배타적인 양극으로 나누는 방식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의 ‘조화’를 추구한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나타난 이후 100여 년이 지나고 토마스 만은 천재적인 파우스트를 다시 소환하여 20세기의 『파우스트 박사』를 세상에 내놓는다. 작품이 출간되기 전인 1945년에 토마스 만은 ‘독일과 독일인 Deutschland und die Deutschen’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도 괴테-파우스트에서 드러난 악마가 그에게는 “정말 독일적 인간형상으로 나타나려”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는 독일의 본질에 정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 같”으며, 전쟁의 포화 속에 처한 “독일을 이런 비유로 관찰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순간이 아니겠”¹⁹⁾느냐며 『파우스트 박사』의 집필

19) Thomas Mann(2009): 쇼펜하우어·니체·프로이트 - 토마스 만, 현대 지성을 논하다, 원당희 역. 서울: 세창미디어, 211.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때 “음악은 마성의 영역”이라고 하며 “파우스트가 독일적 영혼의 대변자가 되려면 그는 음악적이어서 할 것”²⁰⁾이라고도 한다. ‘한 친구가 전하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퀸의 삶’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자전소설은 토마스 만 스스로도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칭했던 만큼 그의 작품 세계의 집약이며, “독일적 영혼에 스며있는 천부적 음악성”²¹⁾을 지닌 레버퀸을 통한 철저한 자기 분석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적인 파우스트-천재가 겪은 삶의 결정적인 요소는 일평생 성실하게 지식 탐구에만 몰두한 학자, 그럴수록 결코 채워지지 않는 지식욕, 진실에 대한 회의, 그런 위기를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돌파하고 싶은 충동, 악의 유혹과의 결탁, 쾌락과 범죄의 늪, 후회와 반성, 세상을 향한 실천적 헌신, 영적인 구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가령 레버퀸을 향한 악마의 설득과 회유에서 암시된다.

우린 일찍부터 네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었어. 빠르게 돌아가는 네 교만한 두뇌, 너의 그 천부적인 재능(ingenium)과 기억력(memoriam)을 말이야. [...] 너의 교만함은 원초적인 것을 갈망했고, [...] 수줍음을 타는 영리함이 있는 스스로에게 지독하게 짜증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겠느냐 말이지. [...] 네가 온몸과 영혼과 정신을 다 바쳐 필사적으로 갈구했던, 일순간에 번쩍 빛나는 섬광, 뇌의 상욕 자극제(Aphrodisiacum)를 얻을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해주었지. [...] 우리는 벌써 계약을 한 것이고, 거래 중이야. [...] 넌 우리에게서 시간을 가져갔어. 천재성을 보장하는 시간, 위대하게 해주는 시간, [...] 24년의 시간이야.²²⁾

Von früh an hatten wir ein Auge auf dich, auf deinen geschwinden,

20) 같은 곳, 212.

21) 같은 곳.

22) 토마스 만(2019): 파우스트 박사 1, 김륜옥 역. 문학과지성사, 478f.

hoffärtigen Kopf, dein trefflich ingenium und memoriam. [...] Denn deine Hoffart verlangte es nach dem Elementarischen. [...] Wußten wir nicht, daß du dich darob ärgertest und dich erbärmlich ennuyiertest mit deiner schamhaften Gescheitheit? So richteten wirs dir mit Fleiß, [...] daß du dirs holtest, die Illumination, das Aphrodisiacum des Hirns, nach dem es dich mit Leib und Seel und Geist so gar verzweifelt verlangte. [...] Wir sind im Vertrage und im Geschäft. [...] Zeit hast du von uns genommen, geniale Zeit, hochtragende Zeit, volle vierundzwanzig Jahre, [...]23)

이 모든 핵심적인 요소는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박사』에서 지극히 과장된 형태로 첨예화됨으로써 패러디의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 극도로 비틀어 올린 과장과 패러디는 동시대의 정치적인 배경과 맞닿아 있다. 토마스 만은 독일적인 파우스트-천재의 행적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악용되어 히틀러의 파우스트 모방으로 현실화되고, 그런 왜곡이 불러온 나치즘이 세상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의 에세이 「형제 히틀러 Bruder Hitler」²⁴⁾(1939)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난 바 있다. 그의 여러 작품에서 예술가가 빈번히 주인공 혹은 주변 인물로 등장하고, 『파우스트 박사』에서도 주인공 레버쿰이 음악가인 것은 예술가를 ‘문제아’로 본 니체의 영향이다²⁵⁾. 위의 에세이에서 히틀러를 예술가에 비유한 것은 “독재자 히틀러를 저열한 예술가 기질의 인간으로 폄하하기 위해 수사학적으로 동원된 비유”²⁶⁾라고 할 수 있다.

23) Thomas Mann(1974): Doktor Faustus. Das Leben des deutschen Tonsetzers Adrian Leverkühn, erzählt von einem Freunde, in: Ders.: GW, Bd. VI. a.a.O., 330f.; 이하 본문에서는 인용문 뒤에 괄호와 함께 페이지 숫자만 표시함.

24) Thomas Mann(1974): Bruder Hitler, in: Ders.: GW, Bd. XII, a.a.O., 845-852.

25) Dazu Børge Kristiansen(1990): Thomas Mann und die Philosophie,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Mann-Handbuch. Stuttgart, 259-283, insbesondere 259-276.

26) 한지은: 토마스 만, 이청준, 그리고 우리, in: 독서신문, 2015. 06. 16.: [http://www.reader

다른 한편, 토마스 만은 주인공 파우스트-레버퀸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 파우스트적인 독일 정신 내지 전통적이고 선한 독일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후반에서 정신이상 증세에 빠진 레버퀸이 만인을 위해 희생한 예수, 그리고 삶의 수수께끼를 꿰뚫어 보았으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며 ‘자기극복’의 삶을 살다간 천재 철학자 니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라. 레버퀸의 작품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지칠 줄 모르며 강조된 비탄, 가장 고통스러운 비탄, 즉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로 묘사되고 가시면류관을 쓴 그리스도 수난상의 몸짓으로 드러나는 비탄²⁷⁾ eine Klage nämlich und [...] eine immerwährende, unerschöpflich akzentuierte Klage von schmerzhaftester Ecce-homo- Gebärde”(644)은 토마스 만의 작품 주제를 충분히 암시한다. 예수-파우스트-니체-레버퀸이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백’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

그러나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형제자매여, 내가 한때 나의 영혼을 팔아 사들인 시간이 이제 모두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그대들을 소집했소. 그대들에게 나의 종교적인 죽음을 숨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오.²⁸⁾

Da aber nun die Zeit ausgelaufen ist, die ich mir einst mit meiner Seele erkaufte, hab ich euch vor meinem Ende zu mir berufen, günstig liebe Brüder und Schwestern, und euch mein geistlich Hinscheiden nicht wollen verbergen. (666)

독일적인 천재 레버퀸이 겪어야 했던 영욕의 운명은 독일의 운명이기

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81]

27) 토마스 만(2019): 파우스트 박사 2, 김륵옥 역. 문학과지성사, 456.

28) 같은 곳, 489.

도 하다. 그러한 작품 내적인 연관성은 『파우스트 박사』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에[천재의 시대에] 독일은 오만방자하게 밀어붙인 끝에 얻은 대승리에 취해 [...] 들떠 있었다. 일찍이 자신의 피로써 서명을 했던 계약서 하나의 힘을 빌려 그 내용을 지키며 세계를 얻어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제2차 대전이 끝나는 시기에] 독일은 무너지고 있다. 악령들에게 잡힌 채, [...]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에서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다. [...] 외로운 한 남자는 손을 포개고 말한다. 신께서 부디 너희 불쌍한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나의 친구여, 나의 조국이여.²⁹⁾

Deutschland [...] taumelte dazumal auf der Höhe wüster Triumphe, im Begriffe, die Welt zu gewinnen kraft des einen Vertrages, den es zu halten gesonnen war, und den es mit seinem Blute gezeichnet hatte. Heute stürzt es, von Dämonen umschlungen, [...] hinab von Verzweiflung zu Verzweiflung. [...] Ein einsamer Mann faltet seine Hände und spricht: Gott sei euerer armen Seele gnädig, mein Freund, mein Vaterland. (676)

2.2. 형식적 요소

2.2.1.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설정: 친구 관계

토마스 만의 자전소설 『파우스트 박사』에서 두 주요 인물인 아드리안 레버퀸과 제레누스 차이트블롬이 평생의 친구 관계라는 설정은 작품 형식의 핵심요소이다. 2년 전에 영면한 주인공 레버퀸의 전기를 기록하는 1인칭 서술자 차이트블롬은 어린 시절부터 레버퀸과 함께 성장하며 그의 천재성을

29) 토마스 만(2019): 파우스트 박사 2, a.a.O., 503.

흠모하고, 평생 그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의리 있고 성실한 친구이다.

내가 인생에서 많은 세월을 천재적인 한 인간, 즉 이 기록문 주인공의 익숙한 주변에서 보내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알고, 그의 성장과 그의 운명의 증인이 되며, 그의 창작물에 미력이나마 보조자 역할로 관여하는 일이 내 몫이었다. [...] 나는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경악에 찬 놀라움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연민과 헌신적인 존경의 마음으로 사랑했다.³⁰⁾

Es war mir beschieden, viele Jahre meines Lebens in der vertrauten Nähe eines genialen Menschen, des Helden dieser Blätter, zu verbringen, ihn seit Kinderzeiten zu kennen, Zeuge seines Werdens, seines Schicksals zu sein und an seinem Schaffen in bescheidener Helfersrolle teilzuhaben. [...] Ich habe ihn geliebt - mit Entsetzen und Zärtlichkeit, mit Erbarmen und hingebender Bewunderung. (12)

이와 같은 인물 구도는 이들과 작가와의 내적인 동질성을 암시한다. 작품 내적으로 이들은 작가 토마스 만의 문학적 자아 Alter Ego가 각각 ‘파우스트적이고 천재적인’ 레버퀸과 ‘독일적이고 건설한 시민’³¹⁾ 차이트블룸으로 양분되어 나타난 형상들이다. 토마스 만은 독일인이 지닌 ‘원래의’ 성실한 봉사 정신과 20세기 초의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 파괴적으로 변모해버린 지배욕의 공존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구상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레버퀸이나 차이트블룸은 각기 긍정적인 면모와 동시에 부정적인 면모를 띠게 된다. 레버퀸의 천재성이 부각될 때는 차이트블룸의 세속성과 평범함이 드러나고, 또 레버퀸의 성격적인 “차가움 *Kälte*”(13), 정신

30) 토마스 만(2019): 파우스트 박사 1, 김륜옥 역. 문학과지성사, 14.

31) Vgl. Thomas Mann(1974): [Bürgerlichkeit], in: Ders.: GW, Bd. XI, a.a.O., 411-412, hier 412: 토마스 만에게 “시민성 Bürgerlichkeit”이라는 개념은 “독일인의 전형적인 속성 eine spezifisch deutsche Haltung”이다.

적인 “자만 *Hochmut*”(110), 모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Indifferenz*”(229) 등이 묘사될 때는 차이트블롬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인간성이 드러난다. 이 같은 인물 구조화 방식은 작품에 내재된 자전적인 내용 및 주제와 맞닿아 있다. 토마스 만은 이 두 핵심 인물 및 이들이 대변하는 정신 세계에 대한 거리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의 작품 내용이 크게 두 시대로 나뉘어서 서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작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지켜보고 있는 차이트블롬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전기의 각 장을 시작할 때 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독일의 실정, 즉 자신의 ‘현재 이야기’를 적고, 이어서 이미 고인이 된 친구 레버퀸의 삶, 즉 천재적인 ‘과거의 이야기’를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이중적인 줄거리 전개는 독일의 전통적인 존재방식과 어느새 길을 잘못 들어 몰락하고 있는 과정을 그려내는 방법이 되고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영원히 여성적인 것’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면,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는 자신의 ‘제2의 자아’나 다름없는 친구를 통해 구원의 길로 안내된다. 작품의 끝에서 레버퀸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감행한 자살 시도를 정확히 인지하는 인물이 1인칭 서술자 차이트블롬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나의 예상으로는, 실패로 돌아간 그의 도피 시도의 배경에는 신비주의적인 구원 사상, 즉 중고대 신학 중에서도 특히 초기신교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사상이 깔려 있었다. 아막의 주술사들은 “육신을 희생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 그것이었다.³²⁾

Nach meiner Ahnung, die fast der Gewißheit gleichkommt, stand hinter seinem vereitelten Fluchtversuch auch eine mystische

32) 토마스 만(2019): 파우스트 박사 2, a.a.O., 499.

Rettungsidee, die der älteren Theologie, namentlich dem frühen Protestantismus wohlvertraut war: die Annahme nämlich, daß Teufelsbeschwörer allenfalls ihre Seele zu retten vermöchten, indem sie „den Leib darangäben“. (673)

레버킨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극도의 불쾌감에 사로잡힌 채 떠나버리고, 단지 몇몇의 여성들만 그의 곁에 남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는 예수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흥미로운 것은,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예수를 마지막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역시 친구 차이트블롬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친구 관계라는 인물 구도의 형식이 작품 주제를 전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이 다시 드러난다.

2.2.2. 이중적인 서술시점

기본적으로 소설에는 “화자의 도입으로 얻어지는 구성적인 장점들이”³³⁾ 적지 않다. 특히 서사의 “소재는 화자라는 매체를 통하여 굴절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부가적인 연상 영역과 연결 가능성들을 지닌 그 이상의 차원이 서술에 포함된다”³⁴⁾고 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의 파우스트 이야기에서 차이트블롬은 전체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주인공 레버킨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그려지며, 이것은 작가가 두 인물에 대해 동시에 거리를 취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배경에서 생성된 작품에서 자전적인 요소가 강할수록, 즉 작가가 자신의 정신사적이자 사회문화적인 뿌리에 대한(자기)비판적인 성찰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그런 거리 취하기를 철저히 지키는

33) Koopmann, Helmut(2000): 소설의 곡예사 토마스 만, 그의 문학과 세계, 류은희 편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155.

34) 같은 곳.

것이 토마스 만의 자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대소설 『파우스트 박사』를 통해 파시즘의 광기를 불러온 독일 정신을 비판적으로 진단”³⁵⁾하면서 차이트블롬을 통해 자전적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자기 비판적인 요소의 양상을 차이트블롬에 이입하는 토마스 만은 “집단적 광기의 발작을 막지 못한 독일 지성을 대표하여 통렬한 자기비판을 수행”³⁶⁾하는 형식을 통해 작품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이 파국으로 이르는 시기에 있던 레버퀸과 정신사적으로 연관된 일들을 1인칭 화자 차이트블롬은 사실상 임의대로 전개시킨다. 이때 작가는 차이트블롬을 통한 과거의 이야기에 “서술적인 영원한 현재성을 허용”³⁷⁾하면서 레버퀸의 이야기를 현재의 이야기로 재탄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토마스 만은 미국 망명지에서 『파우스트 박사』를 집필하면서도 나치 정권과 끊임없이 객관적인 거리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정치적 사건에서 거리를 취해야 했던 이유는 존재하며, 레버퀸에 거리를 취하는 이유 또한 ‘자신의’ 파우스트 이야기를 풀어내려는 서술전략과 상통한다. 주인공과의 내적인 유대는 1인칭 서술자 차이트블롬, 즉 레버퀸에 대해 거리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천재성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유일한 인물을 통해 고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시점은 『파우스트 박사』의 자전적인 주제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형식에 속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시점을 요약하면, 우선 자신의 문학적 자아의 일부로서 1인칭 시점의 서술자인 차이트블롬을 통해 주인공 레버퀸에 대해 거리를 취한다. 또한 레버퀸을 파우스트, 니체, 예수 등과 거의 동일한 존재로 묘사한다. 이것은 토마스 만이 자신의 삶 내지 나치즘에 의한 ‘길 잃은 독일 정신’에 대해 해명하고 원상회복을 시도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요컨대 토마

35) 임홍배(2011): 합리성의 위기와 파시즘: 『파우스트 박사』, in: 안삼환 외: 전설의 스토리텔러, 토마스 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39-165, 여기서는 163.

36) 같은 곳, 165.

37) Koopmann, Helmut(2000): a.a.O., 155.

스 만의 자전소설 『파우스트 박사』에서 서술시점은 작품의 주제 전달을 위해 다층적으로 정교하게 짜인 형식임이 다시 확인된다.

2.2.3. 토마스 만적인 패러디

『파우스트 박사』의 내용적인 ‘무거움’은 작품 소재가 정치적인 배경에서 적나라하게 패러디된 결과이다. 서술 방식으로서의 패러디가³⁸⁾ 추구하는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거리 취하기이다. 자전소설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작가 자신의 삶 내지 그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패러디는 자기 패러디가 된다. 이와 같은 형식은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드러낸다.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 배경과 독일 정신의 변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는 토마스 만의 작품에서 패러디는 매우 효과적인 형식일 수 있다. 더욱이 그런 변화 과정이 현실 정치에 의해 왜곡되고, 또 그런 왜곡의 현장을 작가 자신이 목전에 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토마스 만은 1인칭 서술자 차이트블롬을 통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부터 독일 인문주의 전통을 거쳐 마침내 ‘독일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이 어렵게 형성되기까지 매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한다. 토마스 만이 ‘가장 독일적인 작가’로 평가되는 이유는 그가 이처럼 독일의 정신사를 철저히 꿰뚫으며 자기 패러디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의 서사적 맥락에서 ‘패러디’라는 개념은 토마스 만-레버킨의 입을 통해 예술 내지 음악의 생성 과정에 빗대어 언급된다.

왜 세계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 자체의 패러디로 보일까요? 세계는 왜 거의 모든 것들, 아니 예술의 모든 수단과 편리한 방법들이 **오늘날에는**

38) Vgl. Theodor Verweyen/ Gunther Witting(2003): Parodie,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Neubearbeitung. Berlin, 23 - 27.

오직 패러디에만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³⁹⁾

Warum müssen fast alle Dinge mir als ihre eigene Parodie erscheinen? Warum muss es mir vorkommen, als ob fast alle, nein, alle Mittel und Konvenienzen der Kunst *heute nur noch zu Parodie taugten?* (180)

이와 같은 레버킨의 고백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된 패러디라는 서술 방식은 작품 속에서 거의 모든 등장인물의 묘사에 적용된다. 특히 토마스 만의 실제 외형과 매우 닮은 1인칭 서술자 차이트블롬은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여 간혹 독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밖에도 위엄 있는 성직자의 모습과 달리 호탕하고 거리낌 없는 언변, 심지어 하녀에게 음탕한 농담도 던지는 루터의 모습, 주인공 레버킨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으면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그에게 ‘봉사하는’ 여러 여인들 등은 몇몇 예에 불과하다.

다른 한편, 주인공 레버킨에 대한 패러디는 반드시 객관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천재 레버킨이 민족주의는커녕 정치는 물론이고 세속적인 일상 자체와 너무나 거리가 먼 존재라는 점이 ‘매우 과장된’ 방식으로 부각될 때, 그의 특성이 희화화된다기보다 오히려 천재화 되는, 즉 ‘미화’되는 효과를 낳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체적으로 누구에게나 낯선 느낌을 자아내는 주인공의 비일상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크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그는 예수와 니체처럼 불완전한 삶의 원리를 깨닫고도 결국 자신을 극복하며 만민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스스로를 희생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건반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눈물에 젖은 건반을 매우 심한 불협화음으로 치기 시작했다. [...]

39) 토마스 만(2019): 파우스트 박사 1, a.a.O., 255.

그는 악기 위로 몸을 굽혀서 마치 악기를 감싸 안기라도 할 것처럼 팔을 펼치더니 [...] 의자에서 옆으로 넘어지며 바닥 위로 쓰러졌다.⁴⁰⁾

Wir sahen Tränen seine Wangen hinunterrinnen und auf die Tasten fallen, die er, naß wie sie waren, in stark dissonantem Akkorde anschlug. [...] Er breitete, über das Instrument gebeugt, die Arme aus, als wollte er es damit umfassen, und fiel plötzlich, [...] seitlich vom Sessel hinab zu Boden. (667)

이처럼 레버퀸은 ‘죄인’의 모습이라기보다 ‘희생자’로 그려지고 있듯이 토마스 만의 자전소설 『파우스트 박사』의 패러디는 작품의 외적인 서사를 독특하게 이끌어가는 기능과 함께 작품 내적인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부각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3. 아르노 가이거의 『유배 중인 나의 왕』

3.1. 내용적 요소

3.1.1. 독일적인 의식

아르노 가이거는 그의 자전소설 『유배 중인 나의 왕』에서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치매를 앓게 된 과정의 이야기와 그것을 지켜본 자신의 이야기를 형상화하였다⁴¹⁾.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품의 가장 첫 페이지에 인용된

40) 토마스 만(2019): 파우스트 박사 2, a.a.O., 490.

41) 이 작품에 대한 최근 국내 연구로서는, 김미경(2019): 현대 질병 치매와 문학 미학의 새로운 가능성 탐구 - 가이거의 『유배 중인 늙은 왕』과 수터의 『스몰 월드』를 중심으로, in: 혜세연구, 제41집, 113-136; 김륜옥(2019b): 아르노 가이거의 치매소설 『유배 중인 노년의 왕』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 구조와 주제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비교, in: 독어독문학, 제152집, 60권/4, 111-133.

18·19세기의 일본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 Katsushika Hokusai의 글귀이다. “지극히 보편적인 것도 개인적으로 묘사해야 한다. Man muss auch das Allgmeinste persönlich darstellen.”라는 그 글귀는 아르노 가이거의 주제 의식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²⁾.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⁴³⁾ 라는 생각, 즉 문학은 일회성의 역사보다 일반적인 진리에 가까우며 보편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견해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아르노 가이거는 자신의 실제 아버지와 유사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켜보며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겪는 서술자의 위치에서 “지극히 보편적인” 주제를 그려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흔히 기성세대와 후세대의 대립, 위기 극복, 새로운 발전 단계 등으로 묘사되곤 하는 자전적인 가족 이야기가 변증법의 틀에서 진행되는 독일의 역사 기술 방식과⁴⁴⁾ 맞닿아 있다. 이런 점에서 아르노 가이거의 자전소설 『유배 중인 나의 왕』은 독일적인 배경을 띠거니와, 무엇보다 개인적이고 독일적인 이야기가 이상주의적인 성찰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2. 아버지 혹은 아들 이야기

이 소설의 내용을 구성하는 주요 서사는 아버지의 병세 진행과 이를 지켜

42) 김륜옥(2019b): a.a.O., 122 참조.

43) Aristoteles(2002): 시학,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62f.

44) 가다머는 헤겔의 변증법이 우리 경험의 ‘역사성 Geschichtlichkeit’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 부정에 힘입어 경험이 성취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삶에 의해 규정되는 부정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격의 경험을 ‘변증법적’이라 일컫는다.”: 윤유석(2016): 표상주의, 변증법, 역사성 - 헤겔의 경험 개념에 근거한 표상주의 비판. in: 철학사상, 제61집, 217-244, 여기서는 234.

보는 아들의 심경변화 과정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인칭 서술자로 등장하는 아들은 치매를 겪는 아버지의 행동과 생각을 비교적 담담하게 서술한다. 이때 1인칭 서술자는 아르노 가이거라는 작가의 실제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도 실제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로써 아버지의 존재 역시 실제성을 띠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서술되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기억, 아버지와의 대화,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삶에서 부각되는 사건이나 장면은 모두 아들의 관점에서 선별된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의 시각이 아닌 아들의 시각으로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결국 ‘자전소설’로서의 『유배 중인 나의 왕』에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닌 기능과 의미를 시사한다.

㉠ 이야기의 시작

“내가 여섯 살 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못 알아보았다. Als ich sechs Jahre alt war, hörte mein Großvater auf, mich zu erkennen.”⁴⁵⁾ 라는 작품의 시작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 장면에서부터 작품의 핵심 소재인 치매 증상이 할아버지에게도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세대를 거쳐 나타나는 질병임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아버지의 운명이 되어 버린 치매가 단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아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음이 암시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시대와 삶을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가 매우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한 삶에 내재된 의미는 상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들은 적지 않은 갈등을 거쳐 점차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의 화해로 전체 서사는 마무리되고 있다.

45) Arno Geiger(2011):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München, 7; 이하 본문에서는 아르노 가이거의 소설 인용문 뒤에 괄호와 함께 페이지 숫자만 표시함.

㉞ 전쟁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전쟁은 그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정작 전쟁에 대한 묘사는 전체 내용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에 대한 작품 초반의 언급도 나중에는 확연히 줄어들는다. 그가 전쟁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큰 고난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귀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전쟁 직후 겨우 살아남아 찍었던 사진을 지갑 속에서 넣고 다녔다. 이 사진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은 그에게 전쟁에서의 시간과 기억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전쟁 시기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단서인 이 사진은, 아버지의 치매 발병 초기에 여러 물건과 함께 분실된다.

발병 초기는 [...] 많은 것을 상실한 시기였다. 아버지의 일대기적인 기억뿐 아니라, 그의 삶에서 중요했던 물건들이 하나 둘 사라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 전쟁 후 바로 찍은 상반신 사진이 [...] 분실되었다. Die Anfänge der Krankheit [...] waren sie die Zeit der großen Verluste. Das betrifft sowohl das biographische Gedächtnis des Vaters als auch das konkrete Verschwinden von Dingen, die im Leben des Vaters wichtig gewesen waren. [...] Das Brustbild, unmittelbar nach dem Krieg aufgenommen, [...] verloren. (26)

이와 같은 ‘상실’은 악몽과 같았던 전쟁의 흔적으로부터 마침내 아버지가 자유로워졌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는 1인칭 서술자의 삶에서 ‘역사적 흔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의미와 전쟁으로 비롯된 아버지의 현재 모습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한 전쟁 이야기는 할아버지부터 자전적인 ‘나’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의 연대기적 연속성의 의미를 구성하고자 언급된

소재에 불과하다.

◎ 집 내지 고향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는 집과 고향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의 집착을 묘사하는 장면과 직결되기도 한다. 그에게 고향집이라는 장소는 전체 서사에서 중요한 일화의 중심이며, 아버지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 중 하나이다. 집은 아버지에게 고향이자 그를 가족과 연결시켜주는 구심점이다.

꽤 나중에서야 비로소 나는 점차 이해해갔다. 아버지가 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트라우마 때문이며, 마음속의 일이 끝나지 않아서 집안에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고. 다시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수많은 예방책을 대비한 것이다. 그는 그런 향수병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Erst viel später entwickelte ich ein Verständnis dafür, dass den Weigerungen des Vaters ein Trauma zugrunde lag und dass die Dinge im Herzen kein Ende nehmen und dass das Verhalten des Vaters in der Familie deshalb so aussah, wie es aussah. All die vielen Vorkehrungen, die ihm helfen sollten, sich nie wieder gefährden zu müssen. Solches Heimweh wollte er kein zweites Mal riskieren. (45)

어떤 경우에도 두 번 다시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집에 있어도 집을 떠나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물론 치매의 증세이지만, 이것의 작품 내적인 의미는 그가 한정된 공간으로서의 집으로부터의 점차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음을 말해줄 수도 있다. 1인칭 서술자인 ‘내’가 집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아버지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이다.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던 탓이다.

Es ist eine seltsame Ironie, dass er viele Jahre später doch noch in eine Situation kam, in der er fast jeden Tag nach Hause gehen wollte - und das, weil er vergessen hatte, dass er zu Hause war. (45)

집을 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런 모순으로 인한 슬픔을 크게 느낄 수 없듯이 아들 역시 서서히 슬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㉔ 요양원

아버지는 치매가 발병하자 처음에는 집에서 24시간 동안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나중에 병세가 악화되면서 요양원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그는 더욱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때 그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절망하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난 이제 더는 쓸모가 없고 능력도 꽤나 소진돼버렸단다. 어렵구나. 네게 그다지 큰 도움이 못 될 거야.

Ich erbringe keine guten Ergebnisse mehr, meine Leistungen sind ziemlich schwach geworden. Es ist schwierig. Ich werde dir wohl nicht viel helfen können. (100)

하지만 1인칭 서술자는 이러한 아버지의 상태를 “치매의 황금기 das Goldene Zeitalter der Demenz”(96)라고 칭한다. 게다가 그는 점점 더 자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가 매우 창의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며 아버지의 능력을 부러워하기까지 한다. 작가인 서술자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기발한

언어 구사 능력을 부러워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직업의식에 부합한다. 이 점에서 아르노 가이거의 ‘아버지 이야기’는 결국 아들의 이야기임이 드러난다.

단어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막힘없이 탁탁 나왔다. 아버지는 느긋했고, 생각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 그의 생각들은 종종 독창적일 뿐 아니라 깊이가 있었다. ‘나는 왜 저런 말이 안 떠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나 표현이 정확하고 어조는 또 적절한지 그리고 단어 선택은 어찌나 또 능숙한지 이상하리만큼 놀라웠다.

Locker fielen ihm die Wörter aus dem Mund, klack, klack. Er war entspannt, er redete, was ihm erfiel, und was ihm einfiel, war oft nicht nur originell, sondern hatte eine Tiefe, bei der ich mir dachte: *Warum fällt mir so etwas nicht ein!* Ich wunderte mich, wie präzise er sich ausdrückte und wie genau er den richtigen Ton traf und wie geschickt er die Wörter wählte. (116f.)

그리고 아버지는 다른 환자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모습에서 오히려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도 느끼는 듯하다. 특히 페르데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때 이 대화가 이성과 합리성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더이상 언어의 기능이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동질감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다시금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진다.

두 분은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경탄하고 기뻐하며 알아챈 사실은, 비록 두 분의 질병으로 인한 결함으로 대화 내용은 제한적이었으나,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끝내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Die beiden unterhielten sich lange. Mit Staunen und Freude stellte

ich fest, dass das, was sie zustande brachten, ein gutes Gespräch war, jeder am Gegenüber interessiert, wenn auch mit Einschränkungen aufgrund der jeweiligen krankheitsbedingten Unzulänglichkeiten. (146)

또 이와 같은 이야기의 서술은 요양원 내지 치매 질환에 대한 아들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서술하기 위한 연결 고리의 기능을 한다.

내게 요양원의 환경은 호감을 주며 풍족하게 여겨졌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차분했으며, 여자들은 그 지역 출신으로 모두 편한 사이였다. 대부분의 요양 환자들은 활력이 넘쳤다. 매우 원초적인 방법으로.

Auf mich wirkte das Milieu des Pflegeheims sympathisch und bereichernd, das Personal nett und unaufgeregt, Frauen aus dem Ort, alle per du. Die meisten Bewohner strotzten vor Leben, auf eine sehr elementare Art. (153)

아버지 및 아들의 이와 같은 변화는 언어의 세계를 넘어가는 의미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요양원은 세상의 언어중심주의가 해체되는 공간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경계도 허무는 곳이 된다.

㉔ 왕

아버지를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작품 초반부와 말미에 등장한다. 초반부에 1인칭 서술자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버지는 유배 중인 늙은 왕처럼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부단히 이리저리 헤맨다. Da irrt der Vater rat- und rastlos umher wie ein alter König in seinem Exil.”(12) 라고 하는 곳을 보라. 이것은 서술자가 작품의 제목을 직접 언급

하는 첫 대목이다. 그리고 “유배 중인 늙은 왕”은 작품 말미에 아버지의 치매 증세가 점차 심해질 때 다시 언급된다. “아버지는 그때 실제로 왕처럼 보였다. 홀과 검을 들고 있는 왕. Er sah jetzt tatsächlich wie ein König aus - mit Zepter und Schwert.”(105) 이처럼 작품 말미에서 ‘나’는 치매를 겪는 아버지를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대신 “홀과 검을 들고 있는” 위엄이 넘치는 왕으로 그린다. 짙막한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은 아버지의 삶과 치매라는 질병을 이해한 아들의 변화이다. 여기서 “왕”으로서의 아버지의 이야기 역시 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졌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보고 놀란 아들의 모습은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리처드 2세』에 나오는 대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 땅에 앉아서 왕들의 죽음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하자. Let us sit upon the ground and tell sad stories of the death of kings.”(176) 1인칭 서술자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직감하며 느낀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인용문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작가가 서술자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 후에 찾아올 슬픔에 대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들 말한다.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다. Es heißt: Wer lange genug wartet, kann König werden.”(189) 라는 구절은 병세와 노화에도 잃지 않는 아버지의 품위를 드러냄으로써 아들이 ‘기억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을 남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그의 이야기 역시 상처받지 않고 당당한 아들의 이야기로 남게 되는 것이다.

3.2. 형식적 요소

3.2.1. 주요 인물 간의 관계 설정: 부자관계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노 가이거가 『유배 중인 나의 왕』에 앞서 발표한 작품인 『우리는 잘 지내요 Es geht uns gut』는 조부모와 부모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역사적인 측면도 재구성되며, 기성세대와 후세대의 관계성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⁴⁶⁾. 이와 달리 『유배 중인 나의 왕』의 전개는 전쟁 후 세대인 아들의 관점에서 전쟁 세대인 아버지가 소개된다. 이때 아들은 서술의 초점을 전쟁이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 아버지의 개인적인 삶에 맞추고, 그것을 비교적 담담하게 묘사한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던 아들이 아버지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국 연대감 내지 유대감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세대 이야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립적인 부자관계의 양상과는⁴⁷⁾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아르노 가이거의 작품에 그려진 부자 관계는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이해와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선을 드러낸다.

작품 제목에서 독일어 ‘Exil’의 의미는 망명이나 추방, 즉 본인의 의지와 달리 타지로 쫓겨나거나 쫓아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정상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어의 번역에서 작품의 내적인 주제 의식에 따라 ‘유배’라는 의역도 물론 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르노 가이거의 소설의 원제 중 ‘Der alte König’를 ‘나의 왕’으로 의역하였다. 그것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 진행되는 작품 줄거리의 핵심 인물이 아들과 아버지이고, 그런 부자 관계가 작품 주제 구성에서 갖는 기능과 의미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작가 아르노 가이거의 실명과 더불어 아버지 ‘아우구스트 가이어 August Geiger’의 이름도 소설 속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자전소설의 면모를

46) 이 주제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로서는, 신지영(2019): 오스트리아의 기억문화 - 아르노 가이거의 『우리는 잘 지내요』를 예로 들어, in: 독어독문학, 제152집(2019.12), 89-110.

47) 부자간의 갈등 혹은 그 안에서 겪는 아들의 고민, 괴로움 등을 다룬 대표적인 독일 실존주의 작가로 프란츠 카프카를 들 수 있다.

강하게 드러낸다.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형식적 특징은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이탤릭체 구문들 내지 이탤릭체로 강조된 아버지와의 인터뷰 형식의 대화 장면들이며, 이런 것들은 마치 원래 서사의 후경처럼 배치된 부분에서 나타난다. 우선 소설 곳곳에 인터뷰 장면을 배치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실제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 곳곳에 매우 많이 등장하는 이탤릭체 구문들은 작가의 실제 경험일 법한 것들의 사실적 나열, 아버지와의 대화 장면, 나아가 아버지와의 화해를 뒷받침해 줄 실제 존재했던 작가들의 인용구문 등을 표시한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버지의 질병인 치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 의미의 치매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넘어 사회적인 현상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부자간의 완전한 ‘유대감’으로 이어진다.

알츠하이머병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을 눈뜨게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동시에 알츠하이머는 우리 사회의 상태를 알려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 몇 년에 걸쳐 서서히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아버지와의 유대감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커져갔다.

Uns Gesunden öffnet die Alzheimerkrankheit die Augen dafür, wie komplex die Fähigkeiten sind, die es braucht, um den Alltag zu meistern. Gleichzeitig ist Alzheimer ein Sinnbild für den Zustand unserer Gesellschaft. [...] Angesichts dieser mir während der Jahre heraufdämmernden Erkenntnis lag es nahe, dass ich mich mit dem Vater mehr und mehr solidarisch fühlte. (58)

치매는 신체의 질병이라기보다 뇌에서 일어나는 병이며, 환자도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기 어렵다. 이는 당사자나 주변인 모두 객관적으로 치매 증상

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과도 같다. 아르노 가이거는 치매라는 질병을 아버지의 삶을 둘러볼 수 있는 소재로 사용하며, 결국 치매에 자신의 삶 내지 삶 자체에 대한 깨달음의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아르노 가이거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과 상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2.2. 서술시점

이 작품의 서사는 1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단선적으로 서술된다. 이때 아버지의 이야기 및 아들의 이야기에 대한 서술시점 역시 작품 주제 부각에 매우 중요하다. 아르노 가이거가 의도하는 주제는 작품 곳곳에 제시되어 있다.

알츠하이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세기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도 아버지의 삶은 이러한 발전을 알려주는 징후이다.

Von Alzheimer reden heißt, von der Krankheit des Jahrhunderts reden. Durch Zufall ist das Leben des Vaters symptomatisch für diese Entwicklung. (58)

이런 맥락에서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려지는 가족이라는 의미의 ‘재발견’은 모든 개별적인 존재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공통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 즉, 아버지의 질병이 개인적인 고통이 아닌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고통이며, 현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동체 중심적인 인간관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가족 내의 유대감은 더욱 커졌다. 아버지의 병이 가족의 분열을

막았다. 우리 형제들은 다시금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었다.

Immerhin verstärkte sich das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innerhalb der Familie. Die Krankheit des Vaters hielt den Familienzerfall auf.

Wie Geschwister saßen jetzt wieder alle im selben Boot [...] (64)

이와 같은 주제 의식으로 아르노 가이거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아들의 갈등과 이해를 부자 관계인 두 인물을 통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실제의 삶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 장면을 삽입하거나 인간 존재에 대한 다른 작가들의 말들이나 격언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가인 아들이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 말, 즉 “인간은 글을 쓸 때면 끊임 없이 용서를 구한다. Man bittet stets um Vergebung, wenn man schreibt.”(23) 라는 말에 공감하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또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네 말을 이해하는 그곳이 고향이라는 글을 남겼다. Was Ovid in der Verbannung geschrieben hat - dass Heimat dort ist, wo man deine Sprache versteht.”(57) 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 스스로가 마치 유배당한 것 같다고 느끼리라는 짐작을 드러낸다. 치매로 인해 아버지가 어디서든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통 이해할 수 없을 때의 심정을 아들은, 오스트리아 작가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설 『혹한』의 주인공의 발언, 즉 “나는 심히 무능력해, 정말 심히 무능력하지. [...] 나는 모든 게 이해가 안 돼. *Ich bin tief unfähig, ganz tief unfähig. [...] Mir ist alles unverständlich.*”(114) 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영국 소설가 토마스 하디가 그의 “소설에서 한 노인에 대해 묘사한 말, 즉 그는 마치 쌍곡선이 직선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Dort hieß es über einen alten Mann, er näherte sich dem Tod wie eine Hyperbel der

Geraden.”(145f.) 라는 언급이나, 구약성서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풀과 같다. *Des Menschen Tage sind wie Gras.*”(172) 라는 격언을 인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인용들은 아들이 치매를 겪는 아버지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점과 입장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아르노 가이거는 자신의 작품 의식을 타인의 말을 통해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마치 작품 내에서 각 장을 구분 짓는 듯한 아버지와의 대화 장면은 아르노 가이거가 실제로 자신의 시점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서 차용했다. 이때 “아르노 가이거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문학적 인물로 만든다. 서술자로서 그[가이거]는 한결음 더 나아가 아버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작가, 다시 말해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인 존재로 만든다 Arno Geiger macht seinen Vater zunächst zu einer literarischen Figur. Er geht als Erzähler noch einen Schritt weiter und macht seinen Vater sogar zu einem selbst produzierenden Schriftsteller, also insgesamt zu einem literarischen Wesen.”⁴⁸⁾는 점에서 작가의 서술 방식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에 대한 이해라는 작품의 내적인 의미와 관련이 있다. 그가 어떤 인터뷰에서, “치매를 겪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존경을 보여주 고자 한다. Ich versuche, dem Vater Zuneigung und Respekt entgegenzubringen, auch während seiner Alzheimer-Erkrankung.”⁴⁹⁾ 라고 한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1인칭 화자인 아들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아버지의 이야기와 그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 작가들의 인용과 격언, 들의 실제 대화 장면을 바탕으로 완성되어간다. 어쩌면 아르노 가이거의 자

48) Malte Völk(2015): Wenn sie die Augen schloss, fing sie an zu denken, Demenz in Biographie, Chronik und Tagebuch, in: BIOS - Zeitschrift für Biographieforschung, Oral History und Lebensverlaufsanalysen, 28(1-2), Köln, 102-118, 여기서는 104.

49) Ruhl, Ralf: Liebeserklärung an den Vater, in: Väterzeit, 2011. 04. 12.: [<https://www.vaeter-zeit.de/vaeter-literatur/arno-geiger-der-alte-koenig-in-seinem-exil.php>]

전소설에서 허구와 사실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보다도 더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이야기로 재구성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점들은 아르노 가이거가 아버지의 치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기 인식에 이르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질환이나 자신의 체험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음을 말하는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3.2.3. 타 작가의 재소환

아르노 가이거의 작품에서 1인칭 서술자이자 작가인 아들은 자주 다른 작가들의 말을 이탤릭체로 인용하여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서술한다. 이처럼 여러 다른 작가의 인용구나 과거의 사건을 상징하는 사물들을 차용하는 방식은 아버지의 질환과 관련된 각 단계의 사건에 대한 아들의 생각과 인식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서두에서부터 치매에 대한 생각을 “러시아에는 삶에서 실수 말고 되풀이되는 건 없다는 속담이 있다. In Russland gibt es ein Sprichwort, dass nichts im Leben wiederkehrt außer unseren Fehlern.”(9) 라는 격언을 통해 언급한다. 이것은 아버지 혹은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이 특정한 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체코의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의 말, 즉 “**삶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패배 앞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이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Das einzige, was uns angesichts dieser unausweichlichen Niederlage, die man Leben nennt, bleibt, ist der Versuch, es zu verstehen.***”(8) 라는 인용은 특히 타문화권의 ‘제 3자’의 입을 통해 서술자의 생각에 객관성 내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장치들은 아르노 가이거가 자전소설을 통해 전하려고 하는 주제, 즉 삶의 유한성과 반복성이라는 양가적인 의미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특성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토마스 만이 자전소설에서 두 주요 인물을 친구 관계로 설정하며 자신과의 동질성과 동시에 거리를 드러냈다면, 아르노 가이거는 부자 관계인 두 인물을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아들의 갈등과 이해를 서술한다. 두 세대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 두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공통점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범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세대인 토마스 만은 당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자아 성찰적인 문제를 차이트블롬과 레버퀸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고자 했으며, 아르노 가이거는 치매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아들과 아버지 간의 개인적인 서사로 이끌어냈다.

이때 토마스 만은 독일적인 정신을 함축하는 파우스트 이야기와 작가 자신의 이야기에 나치즘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대입시켰다. 나치즘에 반대하며 미국에서 망명 중에 자전소설을 쓰던 작가 토마스 만은 실제로 ‘망명자’였고, 먼 이국에서도 누구보다 ‘독일의 전통 문학을 대변하는 작가’로서 ‘유배 중인 왕’이었던 셈이다. 아르노 가이거가 자신의 자전소설 『유배 중인 나의 왕』에서 토마스 만을 생각했는지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작가 아르노 가이거가 “지극히 보편적인 것도 개인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서술한 (역시 전쟁 세대인) 아버지의 운명이 토마스 만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토마스 만과 다르게 “‘독일적인’ 부자 관계를 묘사하는 아르노 가이거가 1인칭 서술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범인간적인 문제로 확장하여 성찰”⁵⁰⁾하는 이면에는, 작가가 이전 세대 작가들의 여러 문구들을 자신의 작품에서 인용할 만큼 (토마스 만을 포함하여)

50) 김륜옥(2019b): a.a.O., 103.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법하다. 이런 맥락에서 아르노 가이거는 21세기에 더욱 두드러지는 치매담론을 통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며 자전소설의 새로운 층위를 발견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이 두 작가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서술 입장에 있다. 토마스 만이 『파우스트 박사』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양가적인 시각에서 독일적-일반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 아르노 가이거는 자전소설 『유배 중인 나의 왕』에서 지극히 보편적인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토마스 만의 서술 형식의 특징은 소재의 패러디, 각각 자전적인 자아로서의 서로 다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거리 등에서 나타나고, 아르노 가이거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된 다른 작가의 인용문, 실제 인터뷰의 삽입 등을 통해 나타난다.

미국 망명 중 파국으로 치닫는 독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토마스 만의 양가적인 태도에서 철저한 내면 성찰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보편적인 인간관을 회복하고자 한 20세기 작가의 고뇌가 드러난다. 후세대 작가인 아르노 가이거는 자신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치매담론을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아들의 관점으로 풀어낸다. 이것은 단선적인 시점이지만 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환기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처했던 혹은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른 두 작가는 소설 속 이야기를 작가 개인의 자전적인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는 인종차별, 빈부격차, 다양한 불평등 등과 같은 비 인간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어떠한 시대적인 여건 속에서도 ‘일반적인’ 가치로서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51) 이 주제에 대한 연구로는, Meike Dackweiler(2014): "Die Alzheimer-Narration am Beispiel von Arno Geigers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Merkwürdige Alte, edited by Henriette Herwig,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51-276.

‘인간 본연’의 문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없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구성될 수 없고, 반대로 보편적인 이야기가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 역시 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전소설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는지도 모른다. 자전소설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계속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자전소설 측면에서 새로운 계보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주제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Primärliteratur

Aristoteles(2002): 시학, 천병희 역. 서울: 문예출판사.

Geiger, Arno(2011):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München.

Mann, Thomas(1974): Doktor Faustus. Das Leben des deutschen
Tonsetzers Adrian Leverkühn erzählt von einem Freunde, in:
Ders.: Gesammelte Werke in dreizehn Bänden. Bd. VI. Frankfurt
a. M.

Mann, Thomas(1974): [Bürgerlichkeit], in: Ders.: Gesammelte Werke
Gesammelte Werke in dreizehn Bänden. Bd. XI. Frankfurt a. M.,
411-412.

Mann, Thomas(1974): Zu einem Kapitel aus 'Buddenbrooks', in: Ders.:
Gesammelte Werke in dreizehn Bänden. Bd. XI. Frankfurt a. M.,
552-556.

Mann, Thomas(1974): Bruder Hitler, in: Ders.: Gesammelte Werke in
dreizehn Bänden. Bd. XII. Frankfurt a. M., 845-852.

Mann, Thomas(2019): 파우스트 박사 1/2, 김륵옥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Mann, Thomas(2009): 쇼펜하우어·니체·프로이트 - 토마스 만, 현대 지성을
논하다, 원당희 역. 서울: 세창미디어.

2. Sekundärliteratur

- 김륜옥(2019a):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 예술의 허와 실 - 리하르트 바그너와 토마스 만을 예로, in: 독어독문학, 제150집, 60권 2호, 153-174.
- 김륜옥(2019b): 아르노 가이거의 치매소설 『유배 중인 노년의 왕』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 구조와 주제에 관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비교, in: 독어독문학, 제152집(2019.12), 111-133.
- 김미경(2019): 현대 질병 치매와 문학 미학의 새로운 가능성 탐구 - 가이거의 『유배 중인 늙은 왕』과 수터의 『스몰 월드』를 중심으로, in: 헤세연구, 제41집, 113-136.
- 김옥동(2004):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 서유정(2011): 한·독 여성문학의 ‘자전적 글쓰기’ 비교연구 - 헬가 노박과 오정희의 성장소설, in: 세계문학연구비교, 제35집(여름호), 137-159.
- 신지영(2019): 오스트리아의 기억문화 - 아르노 가이거의 『우리는 잘 지내요』를 예로 들어, in: 독어독문학, 제152집(2019.12), 89-110.
- 안삼환(2016): 새 독일문학사. 서울: 세창출판사.
- 윤유석(2016): 표상주의, 변증법, 역사성 - 헤겔의 경험 개념에 근거한 표상주의 비판, in: 철학사상, 제61집, 217-244.
- 임홍배(2011): 합리성의 위기와 과시즘: 『파우스트 박사』, in: 안삼환 외: 전설의 스토리텔러, 토마스 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39-165.
- 제여매(2014): 자서전의 이론과 변천 - 자서전에서 ‘자전적 소설’로, in: 독어교육, 제67집, 203-225.
-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하. 경기: 국학자료원.
- Dackweiler, Meike(2014): "Die Alzheimer-Narration am Beispiel von Arno

- Geigers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Merkwürdige Alte, edited by Henriette Herwig,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51-276.
- Eagleton, Terry(2001): 문학이론입문, 김현수 역. 인간사랑.
- Holdenried, Michaela(2000): Autobiographie. Stuttgart.
- Koopmann, Helmut(2000): 소설의 곡예사 토마스 만, 그의 문학과 세계, 류은희 편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 Kristiansen, Børge(1990): Thomas Mann und die Philosophie, in: Helmut Koopmann(Hrsg.): Thomas-Mann-Handbuch. Stuttgart, 259-283.
- Renner, Rolf Günter(1985): Lebens-Werk. Zum inneren Zusammenhang der Texte von Thomas Mann. München.
- Verweyen, Theodor/ Witting, Gunther(2003): Parodie, in: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aft. Neubearbeitung. Berlin, 23 - 27.
- Völk, Malte(2015): Wenn sie die Augen schloss, fing sie an zu denken, Demenz in Biographie, Chronik und Tagebuch, in: BIOS - Zeitschrift für Biographieforschung, Oral History und Lebensverlaufsanalysen, 28(1-2), Köln, 102-118.

기사

- 한지은: 토마스 만, 이청준, 그리고 우리, in: 독서신문, 2015. 06. 16.: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81>]
- Ruhl, Ralf: Liebeserklärung an den Vater, in: Väterzeit, 2011.04.12.:
[<https://www.vaeter-zeit.de/vaeter-literatur/arno-geiger-der-alte-koenig-in-seinem-exil.php>]

ABSTRACT

Analyzing the German Autobiographical Novel:
Thomas Mann's *Doktor Faustus* and Arno Geiger's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Lim, Kyungeun

Dep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 and meaning of the autobiographical novels of Thomas Mann's *Doktor Faustus* (1947) and Arno Geiger's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2011), identifying not only the German spirit as revealed in the two literary works but also the content and formal characteristics that convey the theme of each work.

Traditionally, the German spirit is based upon a distinctive philosophy which possesses characteristics of the ideology of global citizenship. National identity in German-speaking countries, which form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originates in Luther's theory of religious belief and modern humanism. At its core, the German spirit tends to pursue the values of pan-national; such global citizenship especially led to Wagner, Nietzsche, and Thomas Mann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As becomes evident by his quotation of previous

German writers in his work, Arno Geiger draws influence therefrom, relaying his autobiographical story through an extensively prominent Alzheimer's discourse in the 21st century. Both Mann and Geiger, in their autobiographical novels, narrate personal histories as universal experiences that can be shared by all human beings.

Thomas Mann, one of the leading modern German writers of the 20th century, depicts the intellectual developing process of Adrian Leverkühn's identity through Serenus Zeitblom, the first-person narrator and biographer. Mann analyzes and unravels through diverse perspectives how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has distorted intellectual history with its chrono-political influence. In contrast, Arno Geiger tells the personal history of his father suffering from Alzheimer's disease whose son not only cares for him but also functions as the first-person narrator of the story. During the events of caring for his father, the narrator son begins to understand his father and also discovers the meaning of his own existence and life. The narrator son experiences an emotional change regarding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This change about the father is particularly remarkable. These feelings represent the feelings that the writer Arno Geiger felt towards his father, who was being suffered from Alzheimer's disease and form the son's story fundamentally.

Thomas Mann introduced an unique narrative technique in *Doktor Faustus*, which he developed due to the restrictions on artistic works enforced during the Nazi period, including the Second World War. When Mann was in exile in the United States, he experimented with a parody

of the literary material in *Faustus*. The parody divides the author's literary self into two characters: Faust-Leverkühn, the protagonist, and Zeitblom, the biographer and friend. The rise and fall of the life of a genius is described in terms of a close yet distant, and unique friendship. In *Faustus*, the writer simultaneously identifies with the genius protagonist, Leverkühn, and the ordinary citizen, Zeitblom, while he also maintaining distance therefrom. This dual strategy of Thomas Mann attempts to reflect on both the author's own psyche and the German spirit, which the author struggles to define as it collapses amid WWII.

In Arno Geiger's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the story of the father suffering from Alzheimer's disease is closely related to the son's narrative of caretaking as well. The two key figures established in the father-son relationship perform the narrative in its entirety. During the process of his father's Alzheimer's disease, the son also experiences a bonding sense of familial solidarity and a universal understanding of human life. The by other writers often quoted first-person narrator's experience of realization, as well as the dialogues from the real interview between Arno Geiger and his father reinforce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human experience.

In conclusion, individual's self-reflection, maturity, and even the restoration of the universal significance of human experience can be discovered in the autobiographical novels of these two authors who were active in different times. More broadly, the function and meaning of autobiographical novels can be approached through comparison of these authors' works as well.

Keywords: autobiographical novel, Thomas Mann, *Doktor Faustus*, Arno Geiger,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figure constellation, point of view, parody

핵심어: 자전소설, 토마스 만, 파우스트 박사, 아르노 가이거, 유배중인 나의 왕, 인물구도, 서술시점, 패러디